

# 건설동향브리핑

## 제461호 (2014. 5. 19)

### ■ 경제 동향

- 2014년 1/4분기 건설투자 4.1% 증가

### ■ 정책 · 경영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시장 구조 왜곡 우려
- 2013년 건설업 경영 성과 분석

### ■ 정보 마당

- SALVO 프로젝트, 노후 시설물의 자산관리 연구 사례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업 회생, M&A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2014년 1/4분기 건설투자 4.1% 증가

- 건축 공종 호조에 기인, 향후 상승세 지속은 불투명 -

### ■ 2013년 1/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

- 건설 경기의 대표적인 동행 지표인 ‘한국은행 국민계정 속보치’ 내 건설투자가 2014년 1/4분기에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투자는 지난 2010년 2/4분기부터 2012년 4/4분기까지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인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음.
  - 2013년 들어 그동안 부진했던 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하고, 비주거용과 토목투자도 양호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해 2010~12년 3년 간의 감소세를 마감함.
  - 2014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39.5조원으로, 지난 2013년 1/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2010년 실질 가격 기준)				증감률(전년 대비)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 건설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 건설
2013	198.6	49.1	69.6	79.9	6.7	19.4	2.4	3.7
1/4	38.0	10.1	13.0	14.8	1.9	9.3	-3.7	2.4
2/4	54.2	13.3	19.1	21.8	9.8	27.7	4.2	5.6
3/4	51.3	12.5	19.5	19.4	8.8	20.9	5.3	5.4
4/4	55.0	13.1	18.0	23.9	5.4	18.7	2.2	1.6
2014. 1/4	39.5	-	-	-	4.1	-	-	-

주 : 2014년 4월 24일 발표한 국민계정 속보치의 건설투자 부분 자료로, 속보치는 세부 공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자료 : 한국은행

### ■ 건설기성 자료로 볼 때, 1/4분기 건설투자 상승은 건축 공종 호조에 기인

- 건설투자 통계 작성시 기초가 되는 건설기성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sup>1)</sup>, 올 1/4분기에 토목 공종은 감소한 반면, 건축 공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건설기성은 21.6조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는데, 토목은 7.6% 감소하였고, 건축은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한국은행 건설투자 속보치는 해당 분기 2개월치 건설기성 자료를, 잠정치는 3개월치 건설기성 자료를 토대로 계산됨.

-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기성이 각각 20.3%,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건축이 양호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1/4분기의 분양이 증가했고, 지방 이전 청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2014년 1/4분기 건설기성 추이>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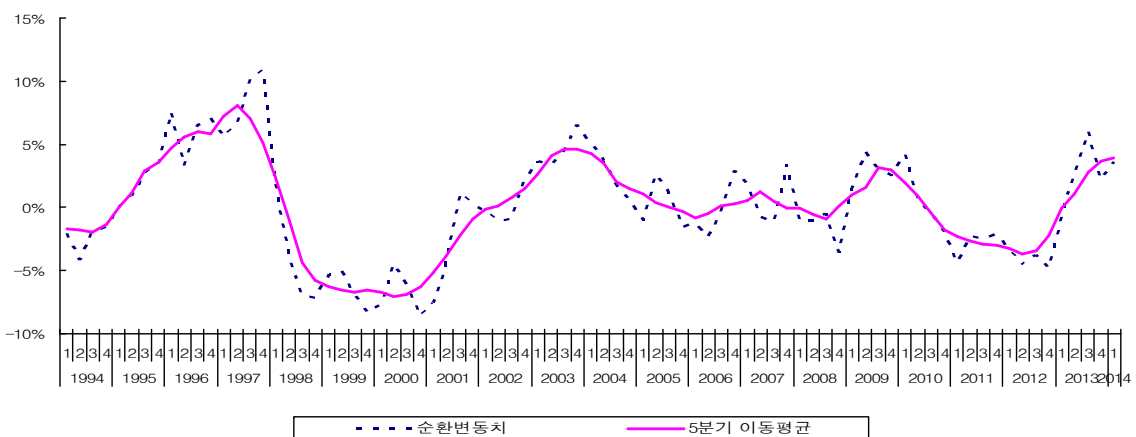
구분	총액	공종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주거용	비주거용	일반토목	전기기계	플랜트		
2014. 1/4	21.6	13.5	7.7	5.8	8.1	4.3	1.4	2.3
증감률	6.7	15.4	20.3	8.9	-7.6	-3.3	29.6	-37.6

자료 : 통계청

■ 건설투자 순환 변동 2012년 4/4분기 이후 확장 국면, 향후 상승세 지속은 불투명

-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 추이를 보면,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찍고 대략 1년 간 확장 국면을 이룬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9.8%, 8.8%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올해 1/4분기까지 총 5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최근 순환 변동치가 과거 정점인 2003년 3/4분기, 2009년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함.
  - 다만,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과 2013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건설투자의 순환 변동 추이>



주 : 한국은행의 자료(건설투자 2010년 연쇄 가격 기준 계절 조정 계열)를 로그화하여 hp 필터로 필터링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시장 구조 왜곡 우려

-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예외 규정의 확대보다 견업을 장려해야 -

### ■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종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2개 이상의 복합 공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함.
  -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면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치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

### ■ 경직적 업역 체계를 완화하려는 정책 방향

- 학·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건설업의 칸막이식 진입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견업 제한 규정을 2008년부터 전면 폐지하였음. 그리고, 견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2013년에 도입<sup>1)</sup>
  - 건설업의 경직적인 업역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견업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적용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sup>2)</sup>.

### ■ 소규모 복합공사의 수주 행태

-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2013년 공사 규모별 계약 실적’에 따르면, 전체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나 자본금 충족 기준을 1/2로 경감하는 등 상호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견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

2) 일례로 민홍철 의원 외 16인은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발의 일자 2013년 11월 22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상시 직원수별 분류에 의한 중소기업이 10억원 미만 복합공사의 92.6%를 수주하고 있는 실정임.<sup>3)</sup>
-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서 실제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의 전문 공종을 등록한 대형 업체임.
  - 전문건설협회의 2013년 기준 업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보유 공종의 수가 1~2개인 전문건설업체는 3만 3,716개 사로서, 전체 업체(3만 7,018개 사)의 91.1%를 차지함.
  - 즉, 보유 공종 수가 3개 이상인 그룹의 비중은 전체의 8.9%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보유 공종 수가 4개 이상인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자본금 평균을 상회하며, 공종 수가 증가할수록 자본금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조정에 관한 논점을 인지해야

- 본질적으로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취지를 이해해야 함.
  - 전문건설업 등록 조건에 비하여 종합건설업은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의 측면에서 상향된 규제를 하고 있음. 이는 공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급 기술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발주자 및 건설 서비스 소비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소규모 복합공사 시장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점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대변되는 건설업 전체 시장의 측면이 아니라, 다수의 중소 규모 종합건설업체와 소수의 대형 전문건설업체 간에 경쟁하고 있는 건설업 하부 시장(Sub-Market) 구조에서의 시장성과 배분의 문제임.
  - 건설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별도의 투자 없이 인위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시장 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는 건전한 시장 구조의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
  - 겸업을 장려하고 있는 규제 프레임하에서 복합 공종의 종합 공사를 도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겸업 후 수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예외적 조항을 확대하기보다는 하도급 비용의 적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3)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10억원 미만 복합공사 시장 점유율은 86.5%에 달함.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이 허용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우성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참조.

## 2013년 건설업 경영 성과 분석<sup>1)</sup>

- 주요 성과 지표 모두 악화, 건설업계 침체 심화 -

### ■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상승, 매출액증가율은 하락해 성장세 멈춰

- 2013년,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성장성은 하락세를 보임. 건설업의 경우,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이 상승한 반면, 매출액증가율은 감소함.
  - 건설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2년의 -3.7%에서 2013년에는 -1.1%로 2.6%p 상승함.
  - 유형자산증가율도 2012년의 -2.1%에서 2013년에는 4.6%로 6.7%p 상승함.
  - 반면, 매출액증가율은 모든 산업이 하락하여 제조업은 2012년의 4.1%에서 2013년에는 0.7%로 3.4%p, 건설업은 2012년의 3.6%에서 2013년에는 0.7%로 2.9%p 하락함.

### ■ 수익성 지표 모두 마이너스(-), 적자 더욱 심화

- 제조업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적자가 더욱 심화되었음.
  -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 의한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각각 2012년의 0.8%에서 2013년에는 -1.2%로 2.0%p가, 2012년의 -3.4%에서 2013년에는 -4.8%로 1.4%p가 하락하면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함.
  -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하여 1년 간 거둔 수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12년의 -11.9%에서 2013년에는 -12.2%로 0.3%p 하락함.

<2013년 건설업 주요 재무 지표>

(단위 : %)

구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현금흐름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금흐름보상비율
건설업	2012	-3.7	-2.1	3.6	0.8	-3.4	-11.9	40.1	33.0	137.2	203.2	26.2	6.7
	2013	-1.1	4.6	0.7	-1.2	-4.8	-12.2	-65.1	32.3	137.0	209.9	28.0	-4.4
제조업	2012	5.4	5.1	4.1	5.7	6.2	9.7	627.6	56.8	131.8	76.1	21.0	75.2
	2013	4.0	2.2	0.7	5.7	5.1	6.6	696.6	58.4	139.3	71.3	19.9	89.5

자료 : 한국은행, 「기업 경영 속보」, 2014. 4.

1) 본 고는 한국은행이 2014년 4월에 발표한 '기업 경영 분석(속보)' 중 건설업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였음.

-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이자보상 비율은 2012년의 40.1%에서 2013년에는 -65.1%로 급감함. 이는 지난해 건설업이 영업 이익으로 금융 비용마저 상환하지 못할 만큼 재무 상태가 취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성이 얼마나 악화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음.

## ■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상승, 현금흐름 악화

- 제조업의 안정성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건설업은 자기자본비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다소 증가하여 안정성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건설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012년의 33.0%에서 2013년에는 32.3%로 0.7%p 하락한 반면, 부채비율은 2012년의 203.2%에서 2013년에는 209.9%로 6.7%p 상승함. 차입금의존도 또한, 2012년의 26.2%에서 2013년에는 28.0%로 1.8%p 상승하여 건설업의 이자 등 금융 비용의 부담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기업의 단기 유동부채에 대한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유동비율은 2012년의 137.2%에서 2013년에는 137.0%로 변화가 거의 없어 건설업의 안정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현금 수입으로 이자 및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전 산업에서 전년 대비 상승함.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12년의 75.2%에서 2013년에는 89.5%로 14.3%p나 상승하였으나, 건설업은 현금흐름의 악화로 2012년의 6.7%에서 2013년에는 -4.4%로 11.1%p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함.

## ■ 건설업 주요 재무 지표 하락, 건설업체는 생존 차원의 전략 구상 필요

- 건설산업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성장·수익·안정성·현금흐름’의 4대 지표가 모두 하락해 여전히 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음.
  - 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 해외건설 리스크 등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해 있음. 또한, 향후에도 건설산업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체는 생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 SALVO 프로젝트, 노후 시설물의 자산관리 연구 사례

- 시설물 자산관리의 확산, 최적 자산관리를 위한 산업 협력 연구 프로젝트 -

### ■ SALVO 프로젝트란?

- SALVO(Strategic Assets : Lifecycle Value Optimization)는 노후화된 시설물의 최적 자산관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산업 간 협력 연구 프로젝트임.
  -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리스크 관리, 전 생애주기상에서의 시설물 가치 최적화,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
  - 시설물의 자산관리, 특히 노후화된 자산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컨소시엄<sup>1)</sup>을 구성하였음.
- SALVO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자산을 언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자산관리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유지관리, 혹은 리뉴얼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 유지관리 전략의 효과, 불확실한 데이터에 따른 재무적 영향, 고객 감동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 등을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각 자산관리 전략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SALVO 프로젝트는 노후 자산의 관리에 대한 성공 사례를 개발하고, 자산관리 의사 결정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과 도구를 개발하고자 기획<sup>2)</sup>

### ■ SALVO 프로젝트의 자산관리 방법

- SALVO 프로젝트에서는 자산관리의 통합과 최적화를 위해 하향식으로 문제를 찾고, 상향식으로 문제를 평가하는 6단계의 자산관리 절차를 제시함.
  - 1단계 : 노후 자산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와 기회 요인을 찾고, 우선 순위 선정
  - 2단계 : 노후 자산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근본 원인 분석
  - 3단계 : 점검, 유지, 보수, 수선 등 노후 자산의 관리 해법 찾기

1) The Woodhouse Partnership Ltd.(산업 및 인프라 분야 자산관리사), National Grid(영국 전력회사), London Underground(런던 지하철공사), SASOL(남아공 에너지 기업), Scottish Water(스코틀랜드 수자원공사), Cambridge University 등이 참여하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salvoproject.org](http://www.salvoproject.org))에서 찾아볼 수 있음.



- 4단계 : 자산에 대한 각 개입 방법을 평가하고 최적화
  - 5단계 : 개별 개입 방법을 최적으로 조합하고 평가
  - 6단계 : 자산 포트폴리오 및 프로그램상에 반영하고, 모든 보유 자산에 대한 투자 계획 수립, 비용 및 리스크 예측 등을 수행
- 또한, 자산관리 및 생애주기관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산 중요도 분석, 비용/편익 평가 등 다양한 방법론의 체계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SALVO는 자산관리에 있어 ‘노후화(Aging)’와 ‘오랜(Old)’의 차이 인식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노후화’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음.
    - 즉, 새로운 시설물이 등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재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경우, 현 시설물이 소유자, 혹은 사용자의 목적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시설물의 기능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도 노후화로 고려되고 있음.

## ■ 다양한 시설물로 자산관리 확산

- 공공 시설물의 자산관리에서 시작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며, 산업 시설물, 제조업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이 일찍이 구축된 선진국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1990년대 들어 사회기반시설물 분야에서 자산관리가 도입됨.
  - 2004년에는 영국 표준협회의 PAS-55, 2014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55000 시리즈가 발표되며 자산관리 표준화가 진행됨.
  - 시설물의 계획에서 건설, 운영,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총 자산의 측면에서 관리, 경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물뿐만 아니라 플랜트,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건설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발견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의 가치가 보다 중요해질 것임.
  - 노후화로 인한 위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에 대비한 전략적 자산관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성유경(책임연구원 · sungyk@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 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및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li> <li>-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사</li> </ul>
5. 12	비정형통합설계 시스템개발연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형 통합 설계 시스템 개발 자체 평가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토론자로 참여</li> </ul>
5. 13	해외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주최, '해외건설공사 수익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li> <li>- 주제 : 현지 사회 기여(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 방안</li> </ul>
5. 16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경제과 주최,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추가 과제 발굴 TF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li> <li>- 건설 기계업자에 대한 불공정 개선 과제 등 논의</li> </ul>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국토교통 연구 기획 사업 연구 개발 과제 선정 평가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손태홍 연구위원 참여</li> <li>- 2014년 국토교통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연구 과제 평가</li> </ul>

■ 「건설업계 연구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11:30~13:30
- 기획 의도 및 논의 내용 : 최근 연구원의 연구 사업 추진 동향 보고 및 향후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업계 연구 자문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기획되었음. 또한, 최근 업계 동향 및 정책·제도 등 개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일정 : 2014년 5월 27일(화)~29일(목) 21시간
- 장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대상 : 건설기업 SOC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정부·정부투자기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 설계·컨설팅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 관련 사업 담당자
- 비용 : 45만원/인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교육비 중 일부 환급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건설업 회생, M&A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4월 1일, 벽산건설의 파산과 쌍용건설의 자본 잠식에 따른 상장 폐지 소식으로 건설 업계에 큰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오랜 역사를 지닌 중견건설업체들이어서 그 파급 영향이 더 크다. 더욱이 건설산업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내·외부의 비관적 시각에 따른 유·무형의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업체들의 기업 회생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M&A만이 유일한 길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건설 경기의 위축이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M&A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견건설업체들의 M&A 가능성과 M&A 후의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기업 회생 절차 본래의 목적에 맞는 기업 회생을 유도하기보다는 인수 합병만을 모색하다보니, 공공공사의 수주에 제약을 받고, 현금 유동성 문제로 신규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 회생 절차에 놓인 업체들은 M&A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고 결국, 파산 상태에 놓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에서는 해당 업체들의 채권단 등 직접 이해 관계자들만의 결정에 일임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중견건설업체들의 문제는 단순히 해당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중견건설업체들의 M&A가 원활히 진행돼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지만, 최근 쌍용건설이 PF 사업장 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구조의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과 같이 기업 회생 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회생 노력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규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산업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건설산업은 이러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산업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경제, 2014. 4. >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